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신학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행·주·좌·와 어디도 걸림없어야 참선

15면에서 계속

나갈 때 그건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것을 알고선 하루는 땅을 치고 울고, 하루는 하늘을 쳐다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내 불성이 있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내 불성이 이렇게 여려하게 하는 줄 몰랐다는 거죠. "내 불성이 여러 가지로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내 불성이 갖추어진 것을, 들이고 내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내 불성이 갖추어진 것을, 들이고 내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내 불성이 갖추어진 것을, 들이고 내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차원이 높습니다. 차원이 높기는 하지만 왜, 계란이 알이 되긴 됐는데도 눈이 '없다면' 그건 무효죠. 그거와 같습니다. 어때요? 하하하... 그 말만 하고 진짜 말을 못하는 심정도 여러분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가끔씩 이렇게 한마디씩 해보는 데 대해서 너무도 획기적이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생각해 보는 점이 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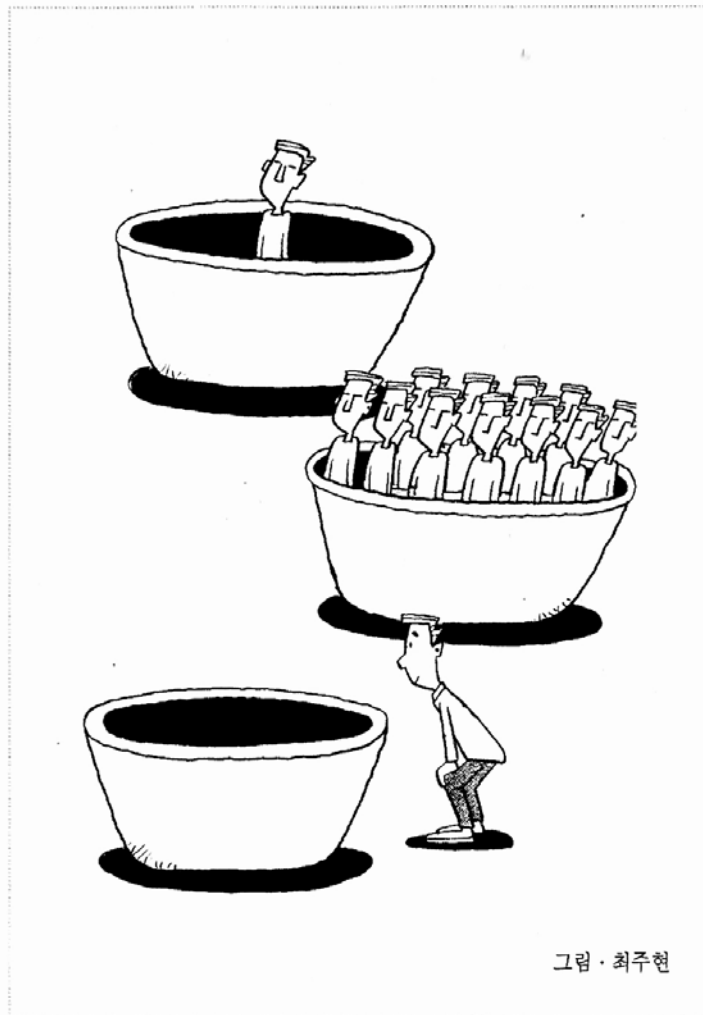
질문1: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 마음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은 한 4년여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남을 떠먹여 주지는 못할 망정, 제 스스로는 떠먹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제 알기라도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엔 나름대로 공부해 온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의 생활에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첫째, 이 마음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설령 몸이 아프더라도 병원이나 약을 찾지 않았습니니다. 주인공 자리에 맡겨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됐습니니다. 다 한두 가지씩은 공부의 재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한 10여 년 전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는 병원에 다니고 했습니니다. 이 공부한 후로는 계속 나름대로 열심히 관(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태가 심할 때는 정말로 저를 성가시게 하고 생활에 불편을 줄 때도 있었습니니다.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야만 내가 주인공 반야줄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갈 게 아니냐, 이러한 가르침으로 알고 저 나름대로 놓고 갔습니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어디까지가 약이고 어디까지가 약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좀 심할 때는 소금물이라도 좀 써 보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것까지도 마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에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내키지가 않습니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기 전에는 술 마실 일이 생겨도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술 마시기가 좀 꺼려졌는데, 이 공부한 이후로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술 마실 인연이 다가와도 일부터 피하지 않고, '꼭 먹지 말아야 한다'던 당신이 안 먹게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냥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이상증세가 나타나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혹시나 어떤 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야 되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난 후에는 '건강문제를 다 말했으면 당신이 다 알아서 할 것이 아닌가' 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특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귀찮아 들리지 않고 건강문제를 다 말했으면 다 알아서 할 것 아닌가 하고 일부터 제가 뭘 하고 그러진 않습니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몸이 불어서 배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 말했으니 알아서 할 것 아닌가 하고 그냥 살아가야 하는 건지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 나왔습니니다.

스님: 사람이 살아야하려면 천차만별의 용도를 다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아심을 가지고 이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 법이다



그림·최추현

달마대사 수염이 있는가 없는가 있고 없고를 떠나 그 가운데서 스스로 알아낸 한마디를 해보라

할 게 없습니니다. 우리가 이 마음공부하는 중에 번번히 일면서 '네가 진짜 있다 면 나와 봐'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물이 아를 때 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밥도 약이니까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고 그대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정히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것도 법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꼭 소금을 썼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것도 법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자성(自性)의 법이죠.

여려하게 계신 부처님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법이다', '저것이 진짜 법이다' 이런 게 없이 내가 '이러하면 괜찮겠다' 하고 생각할 때 그게 진짜 법이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 그걸 의식적으로 그러지 말고요. '이것도 그놈의 법이고, 그것도 그놈의 법이고, 저것도 그놈의 법이니까 그놈이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 안에서 모두 생명이 다 작용을 하겠지.' 하곤 그냥 보세요. 그래서 그놈들이 알아들으면 '허, 아무리 해도 저놈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니까 그냥 해주자' 이라고 그냥 할 겁니다. 아아.

꿈과 만나는 이어!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주인공을 놓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는 구절을 자주 읊고 제 마음자리를 지켜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좌선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주인공 자리, 그 에너지도 보이지 않는 그 여려한 자리에도 항상 맡기고 놓치지 않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우님들이나 스님께 말씀드리면 그것도 또한 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큰스님께서 제 마음자리를 심안으로 보셔서 그것이 정말 착인지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냥 여려하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착이냐 어찌나 하는데, 정말 제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상통

스님: 아까 그 시를 읊으시는데 맨 마지막 파트머리에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고 했죠? 글썽요. 그것을 그냥 간략하게 열은 힌트를 알려줄 양으로 저 나무 뿌리를 항상 방편으로 말을 합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그 나무들은 자기 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 뿌리를 못 보고, 남의 나무 큰 것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자기 뿌리가 없다면 지금 태운 말도 못할 뿐더러 송장이예요. 그냥 송장인데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허허허... 그거를, 개의치 마시고, 또 개의치 않는다는 것도 아니죠. 이게 관하는데 올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길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따라서 남의 말도 들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못나 선생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군요.

그러니까, 1시간씩 좌선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좌선 자리가 따로 없어요. 행선도 참선이요, 섯어도 참선이요, 앉았어도 참선이요, 일을 해도 참선이요, 누워서 자도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걸림이 없어라' 하는 뜻이죠. 어느 거 하나 걸림이 없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거죠. 관법(觀法)이 직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만반 앉았어도 헛 앉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0분이 나 30분 동안 앉아서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하라는 겁니다.

질문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지원 청년회 법우입니다. 제가 대구지원에 나오게 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대행스님을 대해 알게 된 것은 약 한 8년 전 어떤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 이후로는 대행스님을 마음 속으로 굉장히 존경해 왔습니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마스크를 통해 가끔 소식은 알게 되었습니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에는 인연이 되어서 그런지 꼭 스님을 뵙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내 대행스님을 뵙게 된 데 대해 굉장한 행복감을 느낍니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모든 세상만물은, 나부터도 그렇지만 주인공 즉, 근본에서 나와서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나도 중생이고 모든 것이 중생들인데, 중생들은 삼계(三界)에서 항상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즉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을 하지 않으면 더 죄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위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의식이 진화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삼계를 윤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어 성불을 해야 대자유를 얻고, 쉽게 말하면 삼계를 벗어나

서 성불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의식이라는 그 자체가 업을 통하여 진화가 계속돼서 마침내 인간이 됐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성불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지 않았느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합니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드디어 부처님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가는 곳은, 근본자리로 만약에 되돌아간다 하면, 나라고 생각하고 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또 삼계가 아닌 단 세계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세계에 머무는 건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윤회를 하지 않고 떨어져 버린다면 자유롭게 다시 삼계의 인간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스님: 허허허... 삼계에 머물러 있는지 또 돌아올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질문3: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간들은 육체를 벗게 되면 의식 자체로 남아 계속 윤회한다고 하는데 깨달음을 얻은 이분들은 그러한 것이 완전히 근본으로 돌아가면 나라는 이 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스님: 이거 보세요. 삼천 년 전에 계셨던 부처님 그분이 바로 여기를 이렇게 전부 잊지 않습니까? 이게 풀 한 포기만 있어도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예요. 그 도리를 알려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3: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럼 깨쳐왔나 나 자신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스님: 부처님의 그 마음은요, 원자와 같아서 그 속에서 입자가 나오는데 일체 만물만생이 다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입자 아니라고 해서 몸 아님이 없고 자기 생명 아님이 없으니까 뭐, 죽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태어났다는 것도 없고, 또 죽었다는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여려하고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치밀히 해보시면 그 차원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질문3: 원래의 근본자리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이라고 듣기는 들었습니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거면 약간 높은 차원의 세계로 가든가, 나라는 그 자체를 구성한 여러 덩어리로서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를 이해하려니가 힘듭니다.

스님: 그거는요, 이 정신세계의 문제니까, 이 마음 없는 마음의 그 세계에서 본다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삼천 년 전 아니라 언제라도 미래와 현재와 과거고도 이렇게 상통이 되고 일체가 다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합쳐지고 펼쳐지고, 자유자재하죠. 대이 부처님을 놓고 '깨달은' 분들은 실체가 어떠한가? 그 의식이 있나 없나? 그분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도 있나? 그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지금 많이 말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이 모두가 고정점이 없어서 어느 것이 어떻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할 수도 없이 그냥 찰나 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있다 없다,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삼계가 그냥 돌아가니까, 하여튼 아침부터 이렇게 앉아서 설 법 듣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니다. 이것도 우리 인내력을 기르는 거니까 '아이고, 내가 몇 시간씩 앉아서 이렇게 하루 생활을 버렸으니...' 이런 생각은 하루 마세요. 이것도 내 몸을 바로 금감옥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허허허... 금 감옥 있죠? (합장하시면서) 그럼 여러분 제가 일어나도 괜찮겠습니까? 허허허...

*위 법문은 1996년 7월 7일 법철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파른 안목을 닦고 고통은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도서이름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